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변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1차원고접수: 2025.10.10. 수정원고접수: 2025.11.26. 최종게재결정: 2025.12.22.

박지은¹ · 박종호²¹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과정²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Park, Ji-Eun¹Park, Jong Hyo²^{1,2}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201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표된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 33편을 분석하였으며, PRISMA 지침을 준수하고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해 변인을 개인체계,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101개 변인 중 개인·미시체계 변인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주요 보호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부모·또래 애착, 사회적 지지였다. 반면 사회적 낙인감, 부모의 방임·학대, 스마트폰 과의존, 진로장벽은 위험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낙인감은 19편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이 개인 심리, 가족·또래 관계, 지역사회와 사회적 낙인 등 다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학교 밖 청소년, 우울, 보호요인, 위험요인, 체계적 문헌분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total of 33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and master's and doctoral theses published between 2011 and August 2025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guidelines. Based on ecological systems theory,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microsystem, exosystem, and macrosystem levels. Among the 101 identified variables, those at the individual and microsystem levels appeared most frequently. Major protective factors included self-esteem, resilience,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whereas social stigma, parental neglect and abuse,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areer barriers we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Notably, social stigma emerged consistently across nineteen studies as a key risk variab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complex interplay of multilayered factors, including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community contexts, and broader social stigmas.

Keywords out-of-school adolescents, depression, protective factors, risk factors, systematic review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 다른 길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중단 사유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교육기본통계, 2024)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수는 꾸준

히 줄고 있으며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24)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2.05%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생들이 과목 선택과 학업 관리에 부담을 느끼며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 2025.8.10.).

Corresponding to 박종호 (Park, Jong Hyo)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E-mail**, jonghyop@konkuk.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여성가족부 통계(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2025)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는 심리·정서적인 문제(31.4%)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였고,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중 우울의 문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약 세 명 중 한 명꼴로 우울·불안 및 자살 관련 위험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약 35%가 우울, 29%가 불안, 36.8%가 자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질병관리청, 2024)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7.7%(남학생 23.1%, 여학생 32.5%)이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 학생 평균 42.3%에 달한다. 그에 비해 2024년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33.0%(남자청소년 25.6%, 여자청소년 40.5%)가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보다 5.3% 더 높았다(여성가족부 등, 2025).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로 학업 중단하는 예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우울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방은주 등, 2016).

우울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보고된다. 이들의 우울 수준은 무력감·좌절감·집중력 저하·수면 문제 등 일상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순, 2009).

미국의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에서는 학업 중단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정신건강과 정서·행동 문제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Chappell, O'Connor, Withington, & Stegeline, 2015). 이 연구에서는 가족참여, 행동개입, 문해력 향상 등 정서적·인지적 지원이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중단이 단순한 교육적 실패가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 증상은 사회적 고립 등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며, 주변 인물이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준, 2010). 그리고 청소년기의 이러한 우울 경험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속된 우울감을 느끼게 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김도연, 정현희, 2023).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문정(2021)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체계가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보았는데 개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 체계의 다양한 변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유의한 관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낙인감, 방임, 친구애착, 지역사회 무질서, 유대와 통제 등이 우울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과 김현경의 연구(2020)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또래지지가 이후 초기 성인기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위험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분류하고 분석해 왔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영옥, 정해미, 김수빈과 박윤미(2025)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 연구 300편을 분석하여 ‘우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사회적지지’, ‘부모-자녀 관계’ 등의 키워드가 중심성을 가지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문헌을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연구의 핵심 개념 간 연결망을 시각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키워드 기반의 정량적 분석에 그쳐 각 연구 간의 맥락적 차이나 변수 간 보호·위험요인과 생태학적 수준에 대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생태체계별 및 보호·위험 변인별 분석 틀을 설정하여 문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이 있는 변인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연관성의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개입과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된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교육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집단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와 낙인 경험 등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학업 중단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청소년은 선택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 학교를 떠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학업 부적응, 경제적 취약성, 가족해체, 학교·지역사회 지원 부족 등)에 의해 교육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신정란,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주는 단순히 자퇴나 퇴학을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 대안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도 포함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공교육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은 단

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를 넘어, 교육적 소외와 사회적 배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2002년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학문적 관심 또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공식 용어로 정착되기까지 연구 대상, 주제, 방법 등의 측면에서 연구 경향이 점차 다양화되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김선아, 2012; 김영희, 최보영, 2015; 문은식, 2006; 박재은, 정슬기, 2011; 신현숙, 구본용, 2002; 이경상, 조혜영, 2005; 이병환, 2002;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전국에는 약 22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진로 탐색,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복귀, 사회 진입, 자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업 중단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이 학교를 떠나기 수년 전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다(Rumberger, 2011).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단지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그치지 않고, 학업 유지와 미래 사회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학업 수행 능력이나 학교 적응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되며, 정신건강 문제는 학업 성취의 저하나 학교 중단으로 이어지는 주요 위험으로 작용한다(Rumberger, 2011). 방은주 등(2016)은 전국 15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한 AMPQ-II 점수가 높을수록, 즉 정신건강 문제가 심할수록 학업성취도는 낮아지고 학업 중단율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불안, 무기력, 우울, 자살 사고 등으로

구성된 ‘기분 및 자살’ 척도는 학업 중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우울이 청소년의 학업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학업 중단으로 이어진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후 어떤 정신건강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대해 최정원(2024)은 전국 단위의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일반 재학생 청소년보다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정서적 문제를 훨씬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으며, 외상경험과 정신과적 고위험군 비율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제의 심화와 만성화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정신건강이 학업 중단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학업 중단 이후 정신건강이 얼마나 더 악화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Baumeister와 Leary(1995)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need to belong)’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를 확장한 Allen, Gray, Baumeister와 Leary(2022)는 학교맥락에서의 소속감이 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유지에 핵심적 요인임을 보고하며, 소속감 결여가 우울과 학업 중단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적 소속감의 단절로 인해 우울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Rumberger(2011)은 학업 중단 위험을 분석하며, 우울(depression)이 학습 참여와 학교 환경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울과 기타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교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당히 자주 통계 분석에서 간과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우울이 학업 중단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에서는 구조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학업 중단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이 양방향적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서 문제로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우울이다. 국내 상황에도 마찬가지이다. 우울은 학업 동기 저하, 자존감 손상, 또래 관계 단절, 자살사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적응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고립과 자기부정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의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실태 파악에 머무르고 있다(최정원, 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청소년기의 우울은 단순한 일시적 정서문제가 아니라,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다. Fergusson과 Woodward(2002)는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학력, 직업, 사회적 기능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에게 있어 우울 관리와 개입이 학업뿐 아니라 미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우울’에 주목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이영옥 등(2025)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된 국내 연구 300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연구가 주로 ‘우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핵심 심리·사회적 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변인들이 상호연결망을 이루며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발달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실태조사나 개별 변수 중심의 실증연구에 국한되어 왔다. 박동진, 김지혜, 최해경 등의 일부 연구자들이 우울과 낙인감, 자아존중감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단일 시점의 단면적 분석에 그친 경우가 많고, 우울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접근이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김지혜, 노충래, 2024; 박동진, 김나연, 2019; 최해경, 2023)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복합적 위험군에서 우울이 갖는 핵심적 의미와 그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이들 간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향후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 관계, 환경 수준의 다양한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이 상호작용하는 생태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Bronfenbrenner, 1979),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 변인(이준기, 2011; Bandura, 1997), 부모·또래 지지와 같은 관계 변인(이지선, 도경아, 2021; Rueger, Malecki, Pyun, Aycocck, & Coyle, 2016),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환경 변인들이 보호변인으로 제시되어 왔고, 반대로 자아존중감 저하, 정서조절 곤란, 학대 및 낙인감 등은 주요 위험변인으로 확인되었다(김지민, 이은경, 2021; 이영찬, 2015; 김지민, 이은경, 민미연, 2022).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향후 개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된 국내 연구의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생태학적 수준에 따라 어떠한 변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학교 밖 우울 관련 변인을 생태학적 수준 내 위험과 보호로 구분해 보았을 때 어떠한 변인들이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4. 학교 밖 청소년 우울과 주요 관련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문헌 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Kitchenham(2004)의 체계적 문헌연구 절차를 참고하되, 연구 목적에 맞게 조정된 문헌분석 절차를 따랐다. 첫 번째 단계인 계획(planning) 단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분석자료의 수집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문헌 고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선정을 위해 ‘원문 입수 가능성’,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여부’, ‘연구 주제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실행(conducting) 단계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기준인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PRISMA) 2020의 한국어판 지침과 함께 설정된 문헌 수집 기준을 바탕으로, 문헌을 ‘발견(Identification)’, ‘선별(Screening)’, ‘검토(Eligibility)’, ‘선정(Included)’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문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 보고(reporting) 단계에서는 선정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기술하였다. 자료 분석과 결과 도출, 원고 작성은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을 통해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가이드라인(Liberati et al., 2009)을 참고하였다. 체계적 문헌연구의 경우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문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포함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문헌을 선택하여 해당 조건 및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의 연구대상을 분석한다. 따라서 체계적 문헌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문헌의 선정 기준은 객관성 확보 및 최대로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교육

표 1. 분석 기준

구분	선정 기준	배제 기준
출판형태	국내 학술지 KCI 등재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 보고서, 국외논문 KCI 등재 미등재
연구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의도 청소년
변인성격	우울이 종속변인인 문헌	우울이 독립, 매개, 조절변인인 문헌
별도기준	2011년 ~ 2025년 발행논문	2011년 이전 논문

심리 전공 박사, 교수와의 3회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및 변인을 분류하였다. 또한 우울 변인이 종속변인이 아닌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문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으며 변인 간 변인 분류 결과가 모호할 경우 분석 준거 틀로 선정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3회 이상의 그룹핑을 통해 1차 분류결과와 상호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 교육심리 전공박사, 교수와 협의를 하고, 합의된 결론의 합리성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변인 분류는 선행 연구(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제미영, 2014)를 바탕으로 작성한 코딩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였다. 연구자와 교육심리 전공 박사 1인이 우선 10편의 논문을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불일치 항목을 논의하여 코딩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나머지 논문은 수정된 기준에 따라 코딩한 뒤, 코딩 결과 전체를 다시 검토하면서 재차 의견을 조율하였다. 다만 일치도 계수(kappa)를 산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관련 변인의 관계를 밝힌 석·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발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간된 연구물로 기간을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2013년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든 후 본격적인 사업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진행되면서 학교 밖 대상이 명확해져 변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헌 검색은 2025년 8월 20일에 RISS, KISS, DBpia, Google Scholar에서 수행되었다. 검색식은 “(‘학교 밖 청소년’ OR ‘학업 중단 청소년’) AND (우울 OR ‘정서 문제’) AND (변인 OR 요인)”의 Boolean 연산자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포함된 연구가 대부분 비실험적 조사연구로 구성되어 있어, 무작위통제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기반의 위험도 평가 도구(RoB2 등)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개별 연구의 위험도(Risk of Bias)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 설계, 표본, 측정도구 등 기술적 품질 요소를 중심으로 질적 비교(qualitative comparative appraisal)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연구의 설계 유형(횡단·종단 여부, 구조방정식 활용 여부), 표본 크기와 표집 방식,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구성, 우울 및 관련 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타당도(Cronbach's α 보고 여부 등), 분석 전략(상관·회귀·구조방정식 모형 사용, 매개·조절 효과 분석 여부) 등을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한계, 윤리적 고려, 자료 보고의 충실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포함 연구의 전반적 품질 수준과 해석 가능 범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2차 선별 과정에서 총 201편의 논문이 검토되었다. 중복연구 및 질적연구 151편을 제외한 후, 3차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분석 틀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우울에 관한 변인을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종속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검색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준거를 표 2를 바탕으로 코딩하고 유형화하였다. 이후 체계적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대상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틀의 이론적 근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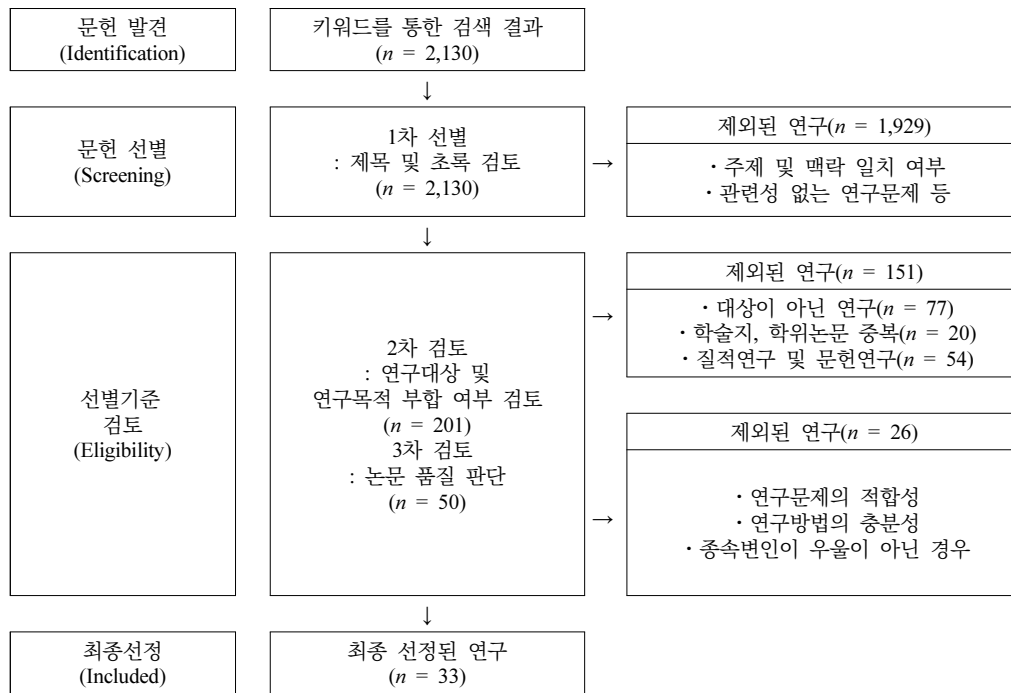


그림 1. 문헌 선별 절차(PRISMA process)

표 2. 분석 준거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연구설계 요소	발행연도	논문 게재 연도
	출판유형	출판, 비출판
	연구방법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및 연구 설계 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징
	표본수	연구대상 표본수
변인별	보호변인	우울을 낮추거나 억제하는
	위험변인	우울을 높이거나 촉진하는
생태체계기반 변인분류	개인체계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미시체계	가족, 친구, 학교 등 직접적인 관계
	중간체계	체계 간의 연결성
	외체계	간접적 환경 변인
	거시체계	제도·문화·사회적 구조

중복코딩 허용

보면 Creswell(2009)의 연구설계 틀을 참고하여 발행 연도,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표본 수 등의 연구설계 요소를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울 관련 변인을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생태체계 기반의 변인 분류로 구성되었다.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구분은 Jessor(1991)의 위험·보호변인 모델과 Masten(2014)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근거로 하며, 이는 특정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을 완충하거나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함

을 설명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가족·지역사회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러한 관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생태체계 이론을 분석 틀로 선택하였다(윤나리, 하은혜, 2019). 우울과 관련있는 변인을 유목화하는 기준은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하여 개인,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

본 연구는 표 2에서 제시한 분석 준거에 따라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총 33편의 연구가 최종 선정되어 표 3에 제시하였다. 최종 포함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 연구설계는 횡단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표본 규모는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1) 논문발행 연도와 분석 결과

분석 대상 논문의 발행연도를 살펴보면, 2011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비교적 급속하

게 연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2015년 꿈드림 센터가 지정 운영되면서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대부분의 대상으로 차지한 학업 중단 패널조사가 5개년(2013년 ~ 2017년)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2023년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024년부터 주춤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

분석된 연구의 대상은 주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

표 3. 분석대상 논문

No	연구자	연도	표본수	No	연구자	연도	표본수
1	이준기	2011	138	18	원서빈, 이양희	2021	318
2	이영찬	2015	148	19	정혜원	2021	454
3	박봉선	2019	318	20	신문정	2021	148
4	박동진, 김나연	2019	854	21	정일영	2022	315
5	김민선	2019	318	22	정문경	2022	318
6	김덕건	2019	302	23	김지민 등	2022	427
7	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213	24	구현수	2022	582
8	박지선	2020	311	25	김은경, 김은영	2023	315
9	이지혜 등	2020	776	26	정일영	2023a	315
10	여현주, 정현희	2020	776	27	정일영	2023b	315
11	박주영, 우정희	2020	318	28	황현진, 박형준	2023	318
12	송수영	2020	309	29	서정화	2023	302
13	김지민, 이은경	2021	77	30	서연정	2023	586
14	김년희	2021	315	31	김지혜, 노충래	2024	295
15	이지선, 도경아	2021	318	32	최희수, 도경아	2025	318
16	김경인, 이지혜	2021	128	33	Enkhbat & Tuguldur	2025	454
17	문숙자, 이윤정	2021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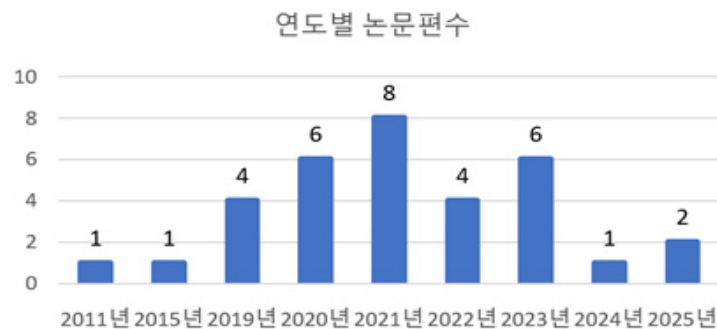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논문편수

사』 데이터 기반한 조사연구이다. 해당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행한 종단적 패널조사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삶의 양상, 경험 변화, 가치관 형성 및 사회 진입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자료는 총 5차례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대상자는 학업 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들에서는 우울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는데, 조사에서 활용된 우울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1차 패널의 2차년도 자료에서 채택된 문항 10개로, 이는 NEO 성격검사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인 신경성(neuroticism)의 우울(depression) 문항에서 선별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가 활용되었다. 한 편의 연구에서는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는 Kovacs(1981)가 개발한 것으로, 7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도구이다. 이는 Beck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1961; 1996년 개정판)를 아동·청소년용으로 수정한 자기보고식 도구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Radloff(1977)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우울 선별 검사로, 최근 1주일 동안의 우울 경험을 바탕으로 총 20개 문항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또 한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활용한 조사연구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2015년을 시작으로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횡단적 조사로 시점별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표 4의 정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을 분석한 총 33편의 연구 중 24편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며, 나머지 9편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유형 및 분석기법

분석 대상이 된 총 33편의 연구 가운데, 대다수인 29편은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종단 연구는 4편에 그쳤다. 횡단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활용한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매개 및 조절 효과 분석을 다룬 연구는 4편이었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적용한 연구 또한 13편으로 확인되며, 복합적 경로 분석을 통한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반면 종단 설계를 적용한 연구는 매우 소수였으며, 이 중 1편은 다층성장모형을, 또 다른 1편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나머지 2편은 종단적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시계열 구조 속에서 변수

표 4.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구분	내용	논문수(편)	백분율(%)
출판형태	학술지논문	24	72.7
	학위논문	9	27.3
연구방법	조사연구	30	90.9
	실증연구(상관연구)	3	9.1
연구대상/표집대상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활용	29	87.9
	학교 밖 청소년(연구자조사)	3	9.1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활용	1	3.0
우울 측정도구	KCYPS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중 10개	29	87.9
	CDI 27개 / CES-D 20개 문항	3	9.1
	자체개발 우울척도(3문항)	1	3.0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생태학적 수준별 학교 밖 청소년 우울 관련 변인 개관

표 6에서와 같이 생태체계 수준별 변인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개인체계 변인이 전체 변인의 약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체계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진로불안 등 개인 내 심리·정서적 특성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미시체계 변인이 약 31.7%로 나타났으며, 주요 변인은 부모 및 또래와 관련된 애착과 사회적 지지였다. 외체계 변인은 10.9%로 지역사회 환경이나 사회적 자본 등 간접적 환경변인이 포함되었고, 거시체계 변인으로는 사회적 낙인감이 19회(18.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중간체계 변인은 포함된 변인이 없었다. 이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관련 연구에서 개인 및 미시 수준 변인에 대한 접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며, 동시에 거시체계 수준의 사회적 낙인감이 주요 환경적 관련변인으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생태체계별 수준별 변인 분류 과정에서 ‘진로장애’, ‘진로장벽’, ‘사회적자본’과 같은 변인은 그 조작적 정의와 연구 내 맥락에 따라 개인, 외체계 또는 거시체계 등 복수 차원에 걸쳐 해석될 수 있는 경계적 속성을 지녔다. 이로 인해 일부 변인은 단일 체계로의 엄격한 분류가 어려웠으며, 이는 변인별 빈도 수 산정에 일정 수준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생태학적 수준별 보호·위험 변인 경향

표 7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변인을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개인 내적 변인 중에서는 자아존중감(13편)과 자아탄력성(12편)이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완충하는 핵심적 심리적 보호변인으로 작용함

표 5. 분석대상 논문별 연구유형 및 분석방법

연구유형	분석방법	논문수	통계패키지/분석기법
횡단연구	회귀분석 계열	12	
	매개/조절 분석 계열	4	PROCESS macro 등 사용
	구조방정식모형(SEM) 계열	13	AMOS, Mplus 활용
종단연구	다층성장모형	1	회귀분석 기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1	구조방정식 기반
	종단적 구조방정식 모형	2	
총합		33	

표 6. 생태체계별 변인수

체계구분	주요 변인명	변인수(개)	백분율(%)
개인체계	자아존중감(13), 자아탄력성(12), 삶의(생활)만족도(3), 진로낙관성(1), 그릿(1), 스마트폰(과의존)중독(4), 진로불안(1), 복합외상(1), 부적응적정서조절양식(1), 일상스트레스(1), 충동성(1)	39	38.6
미시체계	부모애착(10), 또래애착(11), 애착(1), 부모지지(3), 또래지지(1), 사회적지지(1), 진로정보탐색(1), 부모방임(2), 부모학대(1), 부모방임과학대(1)	32	31.7
중간체계	-	0	0.0
외체계	사회적자본(1), 지역사회유대감(2), 지역사회무질서(3), 진로장벽(2), 진로장애(3)	11	10.9
거시체계	사회적낙인감(19)	19	18.8
총합		101*	100.0

주. *는 총 33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변인 수(중복 허용).

표 7. 보호·위험 변인별 빈도수

체계	보호변인(빈도수)	빈도(회)	체계	위험변인(빈도수)	빈도(회)
개인 체계	자아존중감(13)	30	개인 체계	스마트폰중독(과의존)(4)	9
	자아탄력성(12)			일상스트레스(1)	
	삶의(생활)만족도(3)			충동성(1)	
	진로낙관성(1)			부적응적정서조절양식(1)	
	그릿(1)			복합외상(1)	
미시 체계	부모애착(10), 또래애착(11), 애착(1)	28	미시 체계	부모의 방임과 학대(4)	4
	부모지지(3), 또래지지(1), 사회적지지(1)			진로장애(3)	
	진로정보탐색(1)			진로장벽(2)	
외 체계	사회적자본(1)	3	외 체계	지역사회 무질서(3)	8
	지역사회 유대감(2)			사회적 낙인감	
거시	-	-	거시	사회적 낙인감	19
보호요인		61	위험변인		40

주. 변인 중복을 허용하여 빈도 합산함(총 33편 연구 기준).

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부모 및 또래 애착은 총 22편의 연구에서 등장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는 주요 관계적 완충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변인으로는 사회적 낙인감이 19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이 개인적 특성보다 사회적 편견과 배제 같은 구조적 위험변인과의 관련성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일상스트레스, 부모의 방임·학대 등은 청소년의 일상적 환경 속에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직접적 취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4. 우울과 주요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업 중단 실태 및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학업 중단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상관값 기반의 기술통계를 실시해 보았다. 특히 패널조사 기반의 연구 29편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변인들만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다층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 연구(김지혜 등, 2024; 여현주, 정현희, 2020; 송수영, 2020)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수 간 변화와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각 차수별 상관값을 모두 포함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우울 관련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 상관계수는 $-.57$ 에서 $-.34$ 사이로 나타났으며($n = 12$), 자아탄력성은 $-.60$ 에서 $-.15$ 사이의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n = 13$). 부모애착($n = 10$)과 또래애착($n = 13$), 사회적 지지($n = 5$) 역시 우울과 $-.49$ 에서 $-.18$ 사이의 부적 관련성이 관찰되었으며, 반대로 스마트폰 중독($n = 3$), 부모의 방임과 학대($n = 6$), 진로장애($n = 5$), 지역사회 무질서($n = 4$), 사회적 낙인감($n = 23$)은 우울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상관계수 범위는 각각 $.22$ 에서 $.56$ 사이였다. 우울과 보호변인, 우울과 위험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연구마다 상관 관계의 크기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메타분석과 같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주요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을 분석 틀로 삼아 연구

에 대한 동향, 주요 관련 변인들을 빈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총 101개의 관련 변인 중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을 볼 때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다룬 국내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 설계, 표본 특성, 분석 관점, 측정도구 등 전반적인 연구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양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학업 중단 패널조사 등 기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는 KCYPs 패널조사에서 사용했던 10개 항목을 주를 이루었으며, 심리·정서 중심의 개인 변인을 중심으로 우울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두드러졌다. 또한 연구대상은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 기반 기관이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우울 연구가 전체적으로 개인-관계 중심의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측정도구의 반복적 사용, 양적 연구 중심의 접근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축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와 미시체계에 변인이 집중된 연구 결과는 기존 생태체계 기반 우울 연구의 경향과 일치한다. 제미영(2014)의 청소년 우울 관련 메타분석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 등 개인 내 심리·정서적 변인, 그리고 부모·또래 관계와 같은 미시체계 변인이 주요 관련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서 유사한 변인이 우울에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Rueger와 동료(2016)가 수행한 메타분석 연구(2016)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특히 부모와 또래로부터의 지지(미시체계 수준)가 우울에 연관성이 가장 강력한 보호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 근접한 사회적 관계와 개인 내 자원의 중요성이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호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제미영(2014)의 메타분석에서도 우울과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보인 개인 변인으로 확인되며, 정서적 안정성과 회복력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나 회복력과 같은 미시체계 수준의 변인은 본질적으로 개인 내적 특성이기 때문에, 가족갈등, 사회적 낙인, 경제적 취약성 등 환경적 압력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Masten, 2014).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환경을 완화하는 지역사회 기반·장기적 정책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내적 변인의 효과만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거나 조명하는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정서적 자원 그 자체를 단독 개입 대상으로 삼는 접근의 한계를 의미하며, Rueger와 동료(2016)이 지적한 것처럼 보호변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부모·또래 관계)라는 미시체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개입은 개인의 내적 자원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지·보완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체계 수준별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Darling-Hammond, Flook, Cook-Harvey, Barron과 Osher (2020)이 제시한 학습 및 발달과학(Scien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의 관점과도 부분적으로 맞닿아 있다. SoLD는 학습과 발달을 개인-관계-환경의 다층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Whole-Child’ 관점의 교육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Design Principles (예: 안전한 관계망 구축, 일관된 구조 제공, 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미국 교육 맥락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감소라

는 한국적 맥락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SoLD의 Design Principles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적 보호 요인을 확장하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즉 MTSS, 사회정서 학습(SEL), 트라우마 인식 교육과 같은 통합적 지원체계는 SoLD의 원리를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에 적합하게 재해석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중심 개입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기적·환경기반 접근으로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의 위험변인으로서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이는 박봉선(2019), 박동진과 김나연(2019), 김민선(2019) 등의 연구와 일치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이탈 이후 경험하는 사회적 평가와 자아 이미지 간 충돌이 정서적 고통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 중단 경험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저하를 통해 그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경민, 최정원, 2021). 그러나 현재 낙인감은 대부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어 사회적 낙인의 구조적 기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제도, 미디어, 정책 언어 등이 어떻게 낙인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다층적 분석이 향후 필요하다.

넷째, 학업 중단 패널조사 기반 연구 29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변인을 추출하여 상관값 기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우울과 보호·위험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우울을 높이는 위험변인과 낮추는 보호변인이 이론적 방향성과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표준화 절차에 따라 효과크기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값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제한점이 존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일반 청소년의 우울과 동일한 구조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들은 학업단절 경험을 통해 제도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학교 밖

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정해체, 경제적 취약성,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의 부족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동반되면서 우울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다층적 압력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 미시체계 변인이 빈번하게 보고된 것은 개인 요인의 중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맥락을 반영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 배제 속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우울은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사회적 낙인감 등 외부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지원의 필요성은 개인, 관계, 지역사회,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al-ecological model)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이 모형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조직적 환경, 제도 및 정책 수준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이는 Masten(2014)이 주장한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과 같은 개인 내 자원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가능케 하는 보호적 환경—즉 부모, 또래, 지역사회 등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시스템이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ordinary magic’으로 작용한다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미시체계 외에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수준의 영향을 균형 있게 다루어, 보호변인과 위험변인 간의 구조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보호변인에 대한 연구가 위험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예방 중심의 개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사회적 지지 등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회복탄력성 형성에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보호변인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 내부의 자원과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개입 전략이야말로 청소년기의 우울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한다(Masten, 2014).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의 분포와 경향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선행 연구들 중 다수가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측정되는 반면, 가정환경·학교경험·지역사회 자원과 같은 상위 생태체계 변인은 구조적으로 축소·단편화되어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의 한계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내적 변인이 빈번하게 보고된 패턴과도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기에, 결과 해석 시 이러한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론적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크기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효과성 비교 및 가중 평균 효과 추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호변인과 위험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물론, 개입의 우선순위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태체계 수준별로 메타분석을 수행한다면, 체계 간 효과 차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정책 설계와 맞춤형 중재 전략 개발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는 체계적 문헌분석의 대상 논문임.

경향신문. (2025. 8. 10). 고교학점제 시행 뒤 학업 중단율 증가... 학생 부담 커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02040005>에서 2025년 10월 7일 인출

- *구현수 (202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진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민, 최정원 (2021).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8(3) 41-58.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41>
- *김경민, 이지혜 (2021). 복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최초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부모애착, 또래애착, 우울의 구조적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653-669.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653>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년희 (2021). 학업중단 청소년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343-350.
<https://doi.org/10.5392/JKCA.2021.21.02.343>
- *김덕건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외상이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연, 정현희 (2023). 청소년 우울 변화유형의 예측변인 및 성인 초기 삶의 만족도 차이. *청소년문화포럼*, 74, 37-65.
<https://doi.org/10.17854/ffyc.2023.04.74.37>
- *김민선 (2019). 학업 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029-1056.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1.1029>
-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 아동·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533-555.
- 김선아 (2012). 학업 중단 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인사회적변인과 중단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16-226.
<https://doi.org/10.5392/JKCA.2012.12.10.216>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 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https://doi.org/10.14816/sky.2015.26.2.145>
- *김은경, 김은영 (2023). 학업 중단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개인 및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1), 255-277.
<https://doi.org/10.21509/KJYS.2023.1.30.01.255>
- *김지민, 이은경 (2021). 학업중단 후기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3), 231-255.
<https://doi.org/10.21509/KJYS.2021.03.28.3.231>

- *김지민, 이은경, 민미연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2), 1049-1062.
- *김지혜, 노충래 (2024).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우울의 종단적 관계. *학교사회복지*, 67, 1-32.
<https://doi.org/10.20993/jSSW.67.1>
- 김현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25.
- *문숙자, 이윤정 (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5), 355-36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5.355>
- 문은식 (2006). 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교육심리연구*, 20(2), 405-424.
-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https://doi.org/10.36697/skya.2019.5.3.71>
- *박봉선 (2019).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81-106.
<https://doi.org/10.17997/SWRY.62.1.4>
- *박지선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융합인문학*, 8(4), 95-122.
<https://doi.org/10.14729/converging.k.2020.8.4.95>
- *박주영, 우정희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2), 97-105.
<https://doi.org/10.15434/kssh.2020.33.2.97>
- 박재은, 정슬기 (2011). 청소년 학교중퇴의도 영향요인: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2(2), 5-29.
- 방은주, 김두형, 노법래, 유혜승, 장지현, 하경희, 박은진, 홍현주 (2016).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정신건강이 학업 성취도와 학업 중단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27(3), 173-180.
<https://doi.org/10.5765/jkacap.2016.27.3.173>
- *서정화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학회지*, 4(4), 51-63.
<https://doi.org/10.51613/JKYCA.2023.4.4.51>
- *서연정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요인 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영 (2020).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또래애착, 우울,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관계.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문정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 체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논문.
- 신정란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활동연구*, 6(3), 1-27.
<https://doi.org/10.36697/skya.2020.6.3.1>
-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202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현주, 정현희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8(4), 115-136.
<https://doi.org/10.22327/kei.2020.38.4.115>
- *원서빈, 이양희 (2021). 부모의 방임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7(7), 125-137.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1.17.7.125>
- 윤나리, 하은혜 (2019).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부정적 경험이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8(2), 1-14.
<https://doi.org/10.22839/adp.2019.8.2.1>
- 이경상, 조혜영 (2005).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병환 (2002).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영옥, 정해미, 김수빈, 박윤미 (2025). 학교 밖 청소년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5(3), 401-415.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3.401>
- *이영찬 (2015).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4), 97-117.
<https://doi.org/10.21509/KJYS.2020.04.27.4.97>
- *이준기 (2011).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선, 도경아 (2021).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우울 관련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4(2), 123-132.
<https://doi.org/10.15434/kssh.2021.34.2.123>
-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65-180.
<https://doi.org/10.35574/KJDP.2020.6.33.2.165>
- 질병관리청. (2024). 2024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청주,

- 충북: 질병관리본부.
- *정문경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진로장애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6, 93-119.
<https://doi.org/10.35422/cwsk.2022.76.93>
- *정일영 (2022). 부모의 학대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1511-1526.
- *정일영 (2023a). 또래애착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1), 3779-3794.
- *정일영 (2023b). 지역사회 무질서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7), 407-416.
<https://doi.org/10.21184/jkeia.2023.10.17.7.407>
- *정혜원 (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감의 관계: 충동성의 매개효과.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학업 중단 청소년. *한국아동학*, 30(6), 391-403.
- 제미영 (2014). 청소년 우울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정원 (2024).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4(11), 70-76.
- 최해경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63, 53-77.
<https://doi.org/10.20993/jSSW.63.3>
- *최희수, 도경아 (2025).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1), 277-286.
<https://doi.org/10.5392/JKCA.2025.25.01.27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1-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현진, 박형준 (2023).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진로불안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3 춘계*, 827-842.
- Allen, K. A., Gray, D. L., Baumeister, R. F., & Leary, M. R. (2022). The need to belong: A deep dive into the origins, implications, and future of a foundational construc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4(4), 1133-1156.
<https://doi.org/10.1007/s10648-021-09633-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561-571.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Manual for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The social-ecological model: A framework for prevention. Retrieved November 26, 2025, from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about/social-ecologicalmodel.html>
- Chappell, S. L., O'Connor, P., Withington, C., & Stegeline, D. A. (2015). *A meta-analysis of dropout prevention outcomes and strategies* (A technical report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er for Educational Partnerships at Old Dominion University). Clemson, SC: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 at Clemson University.
-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arling-Hammond, L., Flook, L., Cook-Harvey, C., Barron, B., & Osher, D. (2020).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of the scien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4(2), 97-140.
<https://doi.org/10.1080/10888691.2018.1537791>
- *Enkhbat, Tuguldur (2025).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ergusson, D. M., & Woodward, L. J. (2002). Mental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role outcomes of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3), 225-231.
<https://doi.org/10.1001/archpsyc.59.3.225>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8), 597-605.
[https://doi.org/10.1016/1054-139X\(91\)90007-K](https://doi.org/10.1016/1054-139X(91)90007-K)
- Kitchenham, B. (2004). *Procedures for performing systematic reviews* (Technical report TR/SE-0401). Keele,

- UK: Keele University.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5-6), 305-315.
- Liberati, A., Altman, D. G., Tetzlaff, J., Mulrow, C., Gøtzsche, P. C., Ioannidis, J. P. A., Clarke, M., Devereaux, P. J., Kleijnen, J., & Moher, D. (2009). The PRISMA statement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of studies that evaluate health care intervention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2(10), e1-e34.
<https://doi.org/10.1016/j.jclinepi.2009.06.006>
- Masten, A. S. (2014). Global perspectives on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Child Development*, 85(1), 6-20.
<https://doi.org/10.1111/cdev.1220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ueger, S. Y., Malecki, C. K., Pyun, Y., Ayccock, C., & Coyle, S. (2016).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42(10), 1017-1067.
<https://doi.org/10.1037/bul0000058>
- Rumberger, R. W. (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